

이용객 2배 늘었는데...무안공항 138억 적자

활주로 이용률 증가 속 공항 활성화 대책 필요

여수 135억·광주 35억...국내 14곳 중 10곳 적자

무안공항이 지난해 130억원대의 영업적자에도 국제선 터미널 이용률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남권 국제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활성화 대책이 마련,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수·광주공항의 적자 폭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안공항의 국제선 터미널 이용률은 34.7%로, 전년도(16.7%)에 견줘 18%포인트나 상승했다.

전남도가 저비용항공사, 지역 여행사 등과 연계해 진행한 공항 활성화 전략이 한 몫을 했다는 게 전남도 안팎의 분석이다.

무안공항 국제선 이용률은 지난 2014년(15.6%) 이후 19.4%(2015년)→20.7%(2016년)로 증가했다가 16.7%(2017년)로 다소 주춤한 뒤 지난해(34.7%) 급등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무안공항 활주로 이용률도 1.1%(2014년)에 불과했다가 지난해 2.7%까지 상승하는 등 증가세다.

무안공항의 경우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한 일본 여행객 감소에도,개항 이후 처음으로 이용객이 연간 60만명을 돌파하

면서 연내 100만명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무안국제공항을 오가는 국제선만 20편에 육박, 한 때 전세기 한 편 띄우는 것조차 버겁던 무안공항이 '서남권 대표 국제공항'으로 비상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다만, 2014년 78억원대 영업 적자가 89억(2015년)→124억(2016년)→139억(2017년)→137억(2018년) 등에 이르는 점은 공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여수·광주공항의 적자는 갈수록 심각하다.

여수공항의 경우 2014년 93억원대 적자를 냈지만 지난해에는 135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국내선 이용률은 15.9%(2014년)에서 21.9%(2018년)으로 상승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여수상공회의소도 이같은 점을 들어 최근 대한항공 김포-여수 노선 감편 운항계획 철회와 노선 추가 증편을 요청하는 건 의서를 국토교통부와 국회, 대한항공 등에 전달한 바 있다.

광주공항의 적자 폭도 심각하다. 광주공항은 2014년 22억원대 적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34억원대로 급등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14개 공항(인천국제공항 제외) 가운데 10곳이 작년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김포공항은 1252억원, 김해공항 1239억원, 제주공항 810억원, 대구공항 111억원 등이 수익을 내면서 한국공항공사 전체로는 254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국제기후환경산업전 DJ센터서 열린다

4일~6일...120개사 참여

국내 최대의 환경 전시회인 '제11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이 4일부터 6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주최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주관하는 전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실생활 속의 환경 안전'을 주제로 기후·환경 관련 전시품을 선보인다.

전시에는 포스코,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 미세먼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창성엔지니어링,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등 120개사가 참가한다.

환경 산업·정책·교육 등 3가지 주제로 환경 관련 종사자는 물론 시민까지 참여

하는 종합 전시회다.

환경안전체험관, ECO 교육·체험관, VR 체험관, 업사이클링 체험 등 체험행사도 선보인다.

참여 업체들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상담회와 교류회도 열린다.

한국표준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중앙 관련 기관의 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한다. 4일 채용설명회에는 환경 공공기관이 참여해 채용 정보를 안내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은 기후·환경 분야 전문 전시로 2013년 국제전시협회(UFI) 인증, 2012년부터 7년 연속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제전시회 인증을 받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대 나주혁신도시에 '오픈 캠퍼스' 추진

전공연계 실습교육과정 개설

전남대학교가 나주혁신도시에 '오픈 캠퍼스' 개설을 추진한다.

'오픈 캠퍼스'는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대학과 협력해 지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무 및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전남대는 3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지역 우수인재 공동 양성 및 방송·통신·전파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두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 채용 확대 ▲방송·통신·전파 전문인력 교류 ▲교육 및 연구시설, 실습장비 등 이용 편의 제공 ▲방송·통신·전파 분야 교육 활성화 및 연구개발 협력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실무 중심형 교육을 위해 전공과 연계한 실습 교육과정인 혁신도시 공공기관 오픈캠퍼스를 추진하기로 해 전자컴퓨터공학부, 신문방송학과, 전자통신공학전공 등 관련 학과 학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희종 기자 chae@

광주도시철도공사 호남 유일 철도정비교육기관 지정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윤진보)는 3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호남 유일의 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철도차량 정비교육 훈련기관은 철도차량정비 기술자 육성을 위해 운영되는 전문 훈련기관으로 전국적으로 공사 포함 5곳만 선정됐다. 올해 시행된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기술자는 국토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비교육 훈련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번 지정을 통해 공사는 도시철도 2호선 시대를 대비한 철도 전문인력 양성에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체 전동차로 실무교육을 실시하게 돼 교육 효과를 제고하고, 타 지역의 철도차량정비기술자들의 교육위탁을 진행하며 수익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강변 축 자전거 거점터미널 운영 재개

광주시는 여름철 무더위로 일시 중단한 광주전과 영산강변 자전거 거점터미널을 지난 1일부터 다시 운영하고 있다. '강변 축 자전거 거점터미널'은 교량 아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자전거 무상수리와 안전교육, 자전거길 안내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전거 통합 서비스센터다. 이곳에는 자전거 전문가 2명이 배치돼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용산교·중양대교·동천교 등 광주전면 3곳과 철단교·산동교·여동대교·극락교·승촌보 등 영산강변 5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중앙대교·동천교·철단교·산동교·여동대교에서는 공유자전거 무료 대여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



3일 광주시 남구 빚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열린 '2019광주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원봉사자 해단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조영택 세계수영조직위원회 사무총장과 자원봉사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시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사업' 탄력

73억 국비 지원 확정

광주시는 기획재정부가 '아시아예술관광 중심도시사업' 국비 지원 최종 심의회를 벌여 국비 7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광주 고유의 예술관광 브랜드상품 개발·운영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키로 한 예술관광 중심도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아시아예술관광 중심도시 사업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46억원을 투자한다.

청년예술여행센터 조성, 아시아청소년 예술여행학교사업 지원, 예술관광사업 기획인력 양성, 스타트업 창업 지원 등 예술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청년예술여행센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 공간과 연계해 국내외 청년 예술인의 활동센터이자 예술관광 소비자와 청년예술인들을 잇는 교류공간이다.

내년부터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 운영한다. 국내 뿐만 아니라 아시아 청소년들의 예술을 통한 성장과 교류를 돕는 아시아 청소년예술여행학교는 다양한 예술제함과 공연, 워크숍, 교육, 숙박이 원스톱으로 해결되는 예술여행 거점시설이다. 관내 노후 시설을 리모델링해 조성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들 예술관광거점 구축과 함께 광주의 예술관광 자원을 포괄적으로 엮어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는 등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사업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수영대회 성공 이끈 자원봉사자 해단식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3일 오후 빚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자원봉사자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용섭 조직위원장, 시의회 김동찬 의장, 조영택 사무총장 등 대회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해단식은 식전공연, 자원봉사자 활동 영상 상영, 감사패와 표창장 수여, 격려사, 축하 공연 순으로 이어졌다.

식전 공연은 풍물패 '하늘땅'의 사물놀이와 팝 바이올리니스트 '유에스터'의 연주로 행사의 문을 열었다. 본 행사가 끝난 후에는 트로트 걸그룹 '레이디티'의 축하 공연이 열렸다.

이날 해단식에서는 시·구 자원봉사센터 등 13개 기관과 우수 자원봉사자 5명이 조직위원장인 이용섭 광주시장으로부터 각

각 감사패와 표창장을 받았다.

또 자원봉사자들이 대회 기간 봉사활동에 대한 소회를 나누며 자신의 지난 경험을 되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영대회 기간에 4000여명의 자원봉사자는 통역, 의전, 시상, 운전 등 7개 분야에서 경기장, 선수촌, 수상센터, 기념실, 공항, 역 등에 배치돼 크고 작은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다.

이용섭 조직위원장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은 자원봉사자의 희생과 배려의 숨은 공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광주의 도시 브랜드와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곤충사육장 + 태양광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